

광주 문화기관 통합이 능사?

인수위 보고서 '문화재단 설립안' 덩치만 키운 공통조직되나 우려 목소리

'문화기관, 통합만이 능사인가.' 강운태 시장 취임과 함께 시 산하 기관의 통폐합 문제가 초미의 관심 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문화 관련 기관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인수위 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진 '광주문화재단' 설립 논의와 관련, 지난 치에 통합에만 초점을 맞춰 타 지역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한데 몰아넣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규모만 키운 '공통 조직'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다.

▲6개 시립예술단도 운영(?)

최근 지역 문화단체들과 관련한 통합 논의의 중심은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있다. 시장 취임 전부터 지역 문화 기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광주문화진위)를 중심으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됐던 타 지역 단체 설립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였다.

광주시장인 인수위회가 내놓은 광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 구성은 광주문화진위와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정을상국제음악제 등을 진행하는 광주공연예술재단을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향 등 6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민문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까지 모두 아우르겠다는 계획이다.

■ 시·도·광역 문화재단 현황

구분	최초출연금	기금성조목액	기금규모 ('09년말)	현기구인원	2010예산액	주요사업
경기문화재단	335억	1,000억	1,030억	189명	635억	• 문화유산 발굴·보존·현대화 · 문화예술지원 · 국제문화예술교류 · 도·군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강원문화재단	60억	200억	188억	45명	108억5천만원	•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 강원문화연구소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	45억	300억	137억	13명	31억8천만원	• 문화예술의 창작보금 및 활동의 지원 · 시장티켓 및 문화비우저사업 · 문화연구소 운영
서울문화재단	500억	3,000억	1,253억	71명	326억	• 문화네트워크사업 · 문예지원사업 · 문화서울기반조성사업 · 예술창의개발사업
인천문화재단	395억	1,000억	504억	63명	97억	• 문화예술기금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교류사업 ·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45억	100억	50억	6명	45억	•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 문화관공산품 개발 · 문화영상제 · 국비수탁사업 등
부산문화재단	114억	500억	114억	6명	89억	•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 혁신조직 · 부산문화센터총진사업
대구문화재단	194억	500억	185억	15명	61억	• 문화예술인 청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대구문화브랜드개발 · 문화예술교육
전남문화예술재단	113억	200억	111억	2명	3억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문화관공산품 개발 · 도·군사업 위탁운영 · 전통예술 보급 및 육성
대전문화재단	90억	500억	89억	10명	32억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경남문화재단	115억	1,000억	113억	10명	134억원	•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지원 ·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 문화행수 제고사업
전북문화재단	-	-	-	-	-	•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사업 육성지원 ·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충북문화재단	150억	200억	-	-	-	-

예산은 광주시 기금과 운영보조금을 출연하고 시민과 기업의 후원금, 티켓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계에서는 인수위인이 전국 시·도·광역문화재단의 사업을 한데 모아 놓은 매머드급 조직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재단이 기존 문진위 사업에 대형 축제 개최, 문화시설 운영,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는 지적

서울문화재단 역시 대형 축제인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스프링 실내악 축제' 등을 주관하고 있지만 시립예술단체들을 운영하지 않고 대규모 공연장을 경영하지 않는다.

5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낸 97억원을 사용하는 인천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인천렌타포트 축제의 운영을 맡기는 됐지만 인천아트플랫폼을 제외한 공연장과 시립예술단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만 운영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 전문 CEO를 영입해 제자리를 잡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사례처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단 운영안도 국공립예술단체를 벤치마킹, 무조건 재단 편입에 무게를 뒀다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재원 확충도 문제다. 현재 재단의 기본 자산이 될 광주문화진위 기금은 50억원 수준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시는 출범 이후 한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반면 2005년 45억원으로 출발한 제주문화재단의 경우 해마다 20억원을 출연, 현재 120억원에 이른다. 최근 강시장이 옛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불社会稳定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도 축소되는 마당에 기금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문화계 인사는 "광주 문진위의 위상 변화 등과 관련한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은 인수위에서 내놓은 안일 뿐이며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9 말 현재>

"축제·시설·예술단 등 한곳서 운영은 무리"

재원도 문제... 타지역 문화재단 사례 없어

이다.

전국 13개 문화재단 중 인수위가 구상중인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문화재단은 없다. 현재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기금 규모 1천 30억원에 유판 63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경기문화재단이다. 189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미술 관련 시설을 경영하고 있지만 공연장과 도립예술단체 운영은 맡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와 페스티벌을 주최하지도 않는다.

다. 강원문화재단 역시 대관령국제 음악제 등 강원도의 대표적 행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대형 문화관련 시설 운영은 맡지 않고 있다.

▲공연장 운영사례도 거의 없어 현재 대형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역시·도·문화재단 가운데는 없다. 성남과 고양문화재단이 성남아트센터와 고양아람누리 등을 운영중일 뿐이다. 문화재단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역시 도립예술단체 운영은 맡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와 페스티벌은 상주하고 있지



주대희 작 '야호~!'



장승효 작 '마신'

열정, 예술과 레이싱을 담다

갤러리 D 'F1' 성공기원 열정전... 29일~내달 25일

열정, 예술과 레이싱을 담다.

갤러리 D(관장 강경자)는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2010 포뮬러 1 코리아 그랑프리'(Formula 1 Korean Grand Prix)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정에 대한 열정전'.

이번 전시는 '서킷'(Circuit)과 '마신'(Machine), '레이싱'(Racing), '포디엄'(Podium) 4개의 주제로 나뉘, 각 주제별로 장승효·오영숙·주대희·최미연씨의 신작을 선보인다.

사진과 조각, 평면과 입체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장승효씨는 F1 마신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포토콜라주작

품 '마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은 작가의 정교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건축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오영숙씨는 서킷을 주제로 일러스트 작품 2점을 출품했다. '지구를 달린다'에서 작가는 대지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F1 서킷과 그들을 품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담았다.

며의 은은함과 번짐을 잘 표현해내는 주대희씨는 F1 침공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에 투영했다. 작품 '야호~!'에는 완주자의 설립과 기쁨이 삼매인 거품과 맑은 어린아이의

표정을 통해 생생히 전해진다.

또 최미연씨는 1950년 F1 그랑프리가 열린 이례로 가장 많이 대회를 개최한 이탈리아 문자의 트로피를 작가의 감성으로 재구성한 '1인자의 놀이터~!'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2010년 F1 그랑프리 캘린더에 이름을 올린 19개 도시의 서킷 도면과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항공사진, 1:18 비율로 제작된 F1 마신의 모델카 7점도 함께 전시된다.

한편, 29일에는 '알기쉽게 풀어보는 F1 그랑프리'라는 주제로 인터넷 웹진 오토레이싱 김태종 편집국장의 특별 강연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228-8011.

/온라인 기자 kroh@kwangju.co.kr



등 혼합재료를 사용한 작품으로 완성됐다.

조선대 미술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이씨는 목포미술협회와 전남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이미경 '내마음의 풍경 II전'

삼호중 한마음 갤러리 내달 17일까지

서양화가 이미경(50)씨의 유쾌한 자연탐방기 '내 마음의 풍경 II' 전이 영암군 삼호중공업 한마음 갤러리에서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전시회가 주로 산을 주제로 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바다와 섬으로 확대된 자연풍경을 담았다.

이씨가 작품에 담아낸 자연풍경은

처음 보는 이의 눈에는 낯설다. 동양화의 관념적 세계도 아니고 서양화의 조형화된 세계도 아니다. 풍광의 외형만 어렵듯이 넘긴 체 활泼된 색과 형태들은 구상미술과 추상미술 사이의 그 어디쯤을 담은 듯하다.

또 자연과 작품을 융합하려는 작가의 전략은 아크릴, 한지, 점토, 면, 실

아문화도시추진단 '문화교실' 개최

4~6학년 대상... 내달 2일~14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체험교실'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 8회를 맞이하는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체험교실'은

'만화창작교실'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홈페이지(www.cct.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이미일(alsdksalk@korea.kr)로 신청하거나, 흥보관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3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30-0187.

제작해 본다.

참가 희망자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홈페이지(www.cct.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이미일(alsdksalk@korea.kr)로 신청하거나, 흥보관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3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30-0187. /김대성기자 bigkim@

송대관

Shin Yang Park Hotel

www.shinyangpark.co.kr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150,000원(VAT포함)

* 예약 및 상담 - 대표전화 : 062) 228-8000 / 예약실 : 062) 228-4711~2 | 주최 및 주관 |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moviehe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마법사의 계자(전체)	포화 속으로 (12세)	인 셀 (12세)
2관 마이어2 (전체)	나잇&데이 (15세)	최고급관
3관 포화 속으로(12세)/이풀립스 (12세)	슈렉 포에버(더빙) (전체)	이기 (18세)
4관 이풀립스 (12세)	슈렉 포에버(3D) (전체)	이풀립스 (12세)
5관 페리코노-천공의 난파선 (전체)	슈렉 포에버(더빙) (전체)	이기 (18세)
6관 슈렉포에버(더빙)(전체)/포화 속으로(12세)	포화 속으로 (12세)	마음이2 (15세)
7관 인 셀 (12세)	인 셀 (12세)	마법사의 계자(전체)
8관 이 기 (18세)	인 셀 (12세)	인 셀 (12세)
9관 이 기 (18세)	이풀립스 (12세)	인 셀 (12세)
10관 인 셀 (12세)	마법사의 계자(전체)	인 셀 (12세)

상당현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영토시팅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보님최대주차장 / www.joycbc.com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